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첫날

은행·증권사 창구 가 보니

### 자통법에 등장하는 새 용어

# 펀드 하나 드는데 30분... 투자자 보호에 '진땀'

## 투자성향 진단서 작성 등 고객·직원 아직은 불편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시행 첫날인 4일 은행과 증권사 창구는 비교적 한산했으나 한층 까다로워진 투자자보호제도로 인해 고객과 금융기관 직원 모두 불편해 하는 모습이였다.

또 대다수 은행 영업점들은 자통법 개시를 알리는 플래카드나 별도의 안내 문구를 마련하지 않았고, 일부 증권사는 별도로 표시하게 돼 있는 펀드 상담 전용창구에 대한 표시를 해놓지 않는 등 준비가 미흡한 모습도 보였다.

이날 광주은행 본점 1층에 있는 영업창구는 자통법 시행 첫날이지만 이전과 다른 변화된 모습을 찾을 수 없었고 창구도 비교적 한산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대다수 고객들이 자통법 시행과 내용에 대해 모르고 요즘은 증시도 불안정해 펀드에 가입하는 사람이 없는 탓인지 조용하다"고 말했다.

자통법 시행으로 가장 달라지는 점은 고객들이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을 신규로 가입할 때 '투자자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는 등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 졌다는 점이다.

이런 탓인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펀드에 가입하는데 20~30분이 걸리자 불편해 하는 고객들도 눈에 띄었다.

D증권사를 찾은 김모(42)씨는 "펀드에 가입하려 왔는데 투자성향 진단 설문서를 작성하고, 모든 절차를 처리하는데 30분 가량이 걸렸다"면서 "시간은 많이 걸려 불편했지만 펀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게 돼 좋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증권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사내 교육과 롤플레이밍으로 끊임없이 새 투자권유제도를 연습해왔지만 막상 자통법이 시행되자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메리츠증권 광주지점의 한 직원은 "만약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려면 별도로 고객의 지정에 따라 가입했고, 투자자로서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를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써야 한다"며 "직원들끼리 서로 고객역할, 창구직원 역할을 하면서 롤플레이밍을 하기는 했지만 직접 고객을 상대하기는 처음이라 떨린다"고 말했다.



자통법 시행 첫날인 4일 광주은행 본점 PB센터 직원(오른쪽)이 펀드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을 상대로 투자성향에 대해 묻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HMC투자증권 광주지점 위승환지점장은 "많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막상 시행해 보니 고객과 금융기관 직원들 모두 불편한 점이 많다"며 "하지만 자통법이 투자자보호에 중점을 둔 만큼 장기적으로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4일 발효된 자통법에는 난해한 용어가 종종 등장해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새로 등장하는 용어들을 쉽게 풀이해 본다.

- ◇금융투자상품=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나 투자성이 있는 상품으로, 증권과 장내의 파생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전문투자자=기관투자자에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들까지 포함한 투자주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비롯해 국과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등이다.
- ◇투자권유대행인=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투자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험 설계사와 비슷하며,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역할을 한다.
- ◇표준투자권유준칙=고객들은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전 자신의 투자경험과 재산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뒤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받게 된다. 이를 포함한 금융투자사들의 금융상품 판매절차 등을 총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 ◇계약해제제도(Cooling off)=실물상품의 반품제도와 비슷하다. 금융투자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집합투자=이전에 사용하던 '간접투자'의 새로운 용어다.
- ◇KYC 룰(Know Your Customer Rule)=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고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과 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이나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서면확인한 후만 해당 서류를 보관·관리해야 한다.

## 자통법 축포... 코스피 1200선 '바짝'

### 증권주 1.46% 오름세... 환율 11원 하락

코스피지수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축하하듯 이틀째 급등하면서 1,200선에 바짝 다가갔다.

4일 코스피지수는 31.17포인트(2.77%) 상승한 1,195.37을 기록했고 코스닥지수도 6.66포인트(1.77%) 오른 378.88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지수는 전날 미국 증시 상승 소식에 20.02포인트(1.72%) 급등세를 출발한 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에 상승폭을 키워 한때 1,195.52까지 치솟기도 했다.

운수창고·전기전자·운수장비 등을 비롯한 전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자통법 시행 수혜주로 꼽히는 증권주가 1.46% 오름세를 보이며 자축했다.

주가 상승에 힘입어 원·달러 환율도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11.00원 떨어진 1,378.50

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시한 연장이 호재로 작용한 데다 외국인이 2천억 원 이상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원화 강세를 이끌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한-미 통화스와프 10월까지 연장

오는 4월 30일 만료 예정이던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6개월 연장됐다. 한도는 종전의 300억 달러가 유지된다.

한국은행은 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사회(FRB)와 통화스와프 계약의 만기를 오는 10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작년 10월 30일 원화를 맡기고 미 FRB로부터 최대 300억 달러를 공급받을 수 있는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통화스와프란 자국 통화와 상대국 통화를 교환하는 거래로, 원금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에 따라 재교환된다.

/연합뉴스

## 光銀 '소호명가' 100호점

### 도자기 업체 '강진 도강요' 현판식

광주은행이 지정하는 소호명가(所湖名家)가 100호점을 기록했다.

광주은행은 강진군 대구면에 있는 도자기 생산업체 '도강요(대표 윤도현)'를 소호명가 100호점으로 선정하고 4일 현판식을 가졌다.(사진)

도자기 명인의 윤씨가 운영하는 도강요는 강진도자기의 세계화와 명품화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로써 소호명가는 지난해 10월 광주 1호점인 '유에다순(장여떡집)'을 시작으로 광주 54곳, 전남 1호점 '대한다업(보성)' 등 전남 40곳, 서울 1호점 '향복(음식점)' 등 서울 6곳 등 총 100호점으로 늘었다.

소호명가 지정제는 브랜드 인지도와 전통성 등을 토대로 탁월한 영업력을 발휘해 유망기업으로 평가받



는 소호(SOHO)기업에 대해 영어표기인 소호와 발음이 같으면서 호남의 명소(家)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호명가'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 혜택을 주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호명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소호명가가 해당 업체에 매출 및 영업실적 향상은 물론 전통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부실 PF매입, 전 금융권으로 확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은행 등 전 금융권역의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매입에 들어간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캠코는 이달 말까지 저축은행 부실 PF 대출 매입을 마무리 짓고 이달 안에 은행과 보험, 증권, 여신전문회사 등이 보유한 부실 PF 대출을 사들이기 시작할 예정이다.

은행과 보험, 증권, 여신사 등이 보

유한 부실 PF 매입금액은 3조~4조 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저축은행 부실 PF 매입금액을 더하면 전체 매입규모는 5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이외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실 PF 매입을 위해 관련기관이 협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세부 매입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안에 매입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외국인 지분을 5% 이상 광주·전남 상장사 6곳

광주·전남 상장사 가운데 외국인 지분율이 5%를 넘는 종목은 6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지역 상장사 외국인 주식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5%를 넘는 지역 상장사(16개 법인에 20개 종목)는 전체의 30%인 6개 종목이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SAFA 조이케질 SF-01

만제 어디서든 조이케질만 있으면 피로는 확 풀어집니다.

조이케질 SF-01

042) 365-3200 1688-1471 02-487-8256